■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45-087.
http://doi.org/10.17948/kcs.2023..100.045

【 특집 :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3 】

『금석집첩』 수록 17~18세기 普賢寺 僧碑와 불교계 승비 건립의 변화*

정병삼(鄭炳三)**

목 차

1. 머리말
2. 17~18세기 僧碑 건립의 추이
3. 『金石集帖』 수록 17~18세기 승비와 불교계 흐름의 변화
4. 雪巖・雲坡・碧虛・天然의 비문으로 본 보현사 승려들의 활동
5. 맺음말

국문초록

『金石集帖』 226책 중에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은 220책이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101종의 불교 자료 중 현재 전하는 것은 88종이다. 『금석집첩』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불교자료는 모두 10종이며, 이밖에 11종은 탁본 자료로서 처음 알려진 것들이다. 88종의 불교 자료 중에 절반에 가까운 41종이 35인의 승려들의 생애를 기록한 僧碑이다. 17세기부터 『금석집첩』이 1차 제작될 무렵인 1760년까지 건립된 승비는 90기인데, 이들 중 普賢寺에 건립된 것이 17기이고, 13기가 白華庵 楡岾寺 乾鳳寺 등 금강산 사찰에 건립되었다. 남쪽 사찰로는 大興寺에 7기, 美黃寺에 2기가 건립되었다. 이들 사찰에 건립된 39기의 승비는 이 시기에 보현사와 대흥사가 불교계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음을 말해 준다.

90기의 승비 중에 『금석집첩』에 채집 수록된 것은 41기이다. 이들은 모두 해당 승려의 僧系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승려들의 생애를 담고 있다. 41기 중 보현사의 승비가 15기로서 절대적으로 많고, 유점사와 백화암에 각 4기, 건봉사와 深源寺에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8401)

**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

각 2기 등 금강산 일대의 사찰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12기가 건립되었다. 경기도는 2기, 경상도는 表忠祠 2기 등 5기이고, 전라도는 3기, 황해도와 함경도는 각 2기이다.

41기의 승비는 浮休系 3기를 제외하고 모두 淸虛系 승려들의 비문이다. 『금석집첩』 수록 승비를 통해 청허계 중에서 四溟派가 금강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法脈을 계승하며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靜觀派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활동하였고, 逍遙派는 대흥사에서 강학을 주도하는 한 흐름을 이루었음을 보여 준다. 鞭羊派는 18기나 되는 가장 많은 자료가 수록되었는데, 같은 편양파 중에서도 계열에 따라 다른 활동 무대를 가졌음을 승비들은 보여주고 있다. 편양-楓潭義諶-月渚道安-雪巖秋鵬을 계승하는 문도들은 보현사에서 대를 이어 활동하며 다른 어떤 계파보다 중추적인 위상을 확립하였다. 풍담-월저-설암은 보현사와 대흥사를 모두 근거로 삼아 활동을 펼쳤다. 이들 월저 계열이 풍담-月潭雪霽-喚醒志安-虎巖體淨-蓮潭有一로 계승되는 법맥과 함께 대흥사를 불교계 제일의 講學 도량으로 이끌었으며, 여기에 소요파의 醉如三愚-華岳文信-雪峰懷淨 계열이 합세하여 대둔사가 18세기 후반 불교계의 중심을 이루었음을 『금석집첩』의 비문이 확인해 준다.

이처럼 『금석집첩』에 수록된 승비 자료는 17~18세기 불교계의 변화 추이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불교사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편양파 승려들이 보현사와 대흥사에서 중첩되는 활동을 보이다가 점차 대흥사 중심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금석집첩』의 비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의의가 크다.

『금석집첩』을 통해 처음으로 소개되는 승비 자료는 승비 제작의 추이를 보여준다는 의미도 갖는다. 18세기에 건립된 雪巖秋鵬・雲坡義俊・碧虛圓照・天然智圓의 4인의 비문이 이를 대표한다. 설암의 비는 4기나 건립되었지만 『금석집첩』에 수록된 보현사비(1708년)가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운파의 비(1728년)는 편양파에 속하지만 풍담과 다른 계열인 운파의 생애를 소략하게 기록한 간단한 비문이다. 벽허의 비(1746년)는 대사의 행적 자체에 대한 부분은 매우 소략한 내용이다. 이는 보현사 승려들의 활동이 불교계에서 점차 위축되던 분위기를 반영한다. 천연의 비(1753년) 또한 소략하다. 다만 천연의 비문을 통해 보현사에서 설암 계열이 세 사람이나 활동하며 종풍을 계승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18세기 보현사의 새로 소개된 승비들은 비문의 내용이 점차 소략해지고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승비들은 17~18세기 불교계의 변화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그대로 보여준다는 불교사적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금석집첩, 승비(僧碑), 보현사(普賢寺), 대흥사(大興寺), 편양파(鞭羊派), 월저도안(月渚道安).

1. 머리말

『金石集帖』은 2,000점이 넘는 금석문을 모은 방대한 자료집으로 그중에는 101종의 불교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88종이 전하고 있다.[1] 이 88종의 자료 가운데는 아직 비문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신자료도 10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용연사 松坡大師碑[1676년, 李殷相 撰 金宇亨 書, 224(聽)책], 보현사 松坡大師碑[1686년, 姜尙齊 撰 및 書, 225(禍)책], 보현사 雪巖大師碑[1708년, 月潛道安 撰 및 書, 225(禍)책], 배천 護國寺事蹟碑[1712년, 安藐庵 撰 劉德輿 書, 227(惡)책], 보현사 雲坡大師碑[1728년, 金時鼎 撰 및 書, 225(禍)책], 명적사 普運大師碑[1730년 경, 趙龜命 撰 弘모 書, 224(聽)책], 장연 聖齋洞事蹟碑[1733년, 金道洙 撰 柳春元 書, 227(惡)책], 보현사 碧虛大師碑[1746년, 吳光運 撰 李德顯 書, 225(禍)책], 보현사 天然大師碑[1753년, 金陽澤 撰 및 書, 224(聽)책], 호국사 寶月大師碑[1755년, 沈師周 撰 敎誉 書, 227(惡)책]이다.

조선 후기의 비문 자료는 그동안 개략적인 목록이 소개되었고,[2] 이들 비문을 수록한 책도 간행되었지만 전반적인 자료 제시는 거의 없었다.[3] 『금석집첩』 수록 신자료는 이제까지 소개된 적이 없는 자료들이다. 이들 중에 유독 보현사 자료가 5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17세기의 송파대사, 18세기의 설암대사・운파대사・벽허대사・천연대사가 그들이다. 이들 비문 중에서 18세기에 활동한 4인의 비문에 나타나는 이들의 행적은 17세기에 비해 활동상이 현저하게 달라진 보현사 승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

1) 정병삼, 「『金石集帖』 수록 불교자료의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38면.

2) 佛教文化硏究所 편찬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에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비 52기 목록을 수록하였다.(東國大 出版部, 1976, 292-299면) 崔源植은 조선시대 178기의 승비 목록을 소개하고(「조선시대 승려 碑銘 및 行狀 一覽」, 『伽山學報』 7,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8a, 17-35면), 6기의 비문을 소개하였다.(「拓本으로 전해지는 조선 후기 승려 碑銘」, 『史學硏究』 55・56, 한국사학회, 1998b, 479-492면) 손성필은 17세기 비문 38기 목록을 소개하였고(「17세기 전반 高僧碑 건립과 조선 불교계」,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146면), 金相永 등은 서울 경기지역의 승비 14기의 비문을 교감 제시하였다.(金相永・崔兌先・黃仁奎・李丙旭, 「朝鮮時代 佛教金石文 調査硏究(1)」,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논문집』 10, 중앙승가대, 2001, 300-340면)

3) 李智冠 編 『韓國高僧碑文總集—朝鮮朝・近現代—』(伽山佛教文化硏究院, 2000)에 150여 기의 비문을 집성하였다.(이 책은 비문 주인공의 생년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건립 연대를 기준으로 파악한 이 글의 집계와 차이가 있다.)

17세기에 불교계 활동의 중심적 위상을 갖던 평안도 외곽의 보현사가 18세기에 들어 어떤 위상으로 바뀌었는지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승비는 후예들이 조사를 현창하고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여 불교계의 위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보현사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불교계 활동상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 변화는 18세기에 들어 분기점을 맞게 되는데, 이 시기에 들어 훨씬 더 많은 승비가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금석집첩』에는 이들 비문이 수록되지 않는 비중이 더 크다. 이는『금석집첩』수록 승비가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던 18세기 조선 불교계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수록 자료의 성격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금석집첩』에 수록한 비문 자료들은 탁본자료로서 서예사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면에서도 그 의의가 큼을 말해 주는 것이다.

2. 17~18세기 僧碑 건립의 추이

고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는 僧碑는 한국에서는 신라말에 비롯되어 고려시대에 가장 많은 건립 사례를 보였다. 고려시대에 건립한 승비는 60여 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王師 또는 國師로 책봉되었던 이들을 기리는 비이다. 승비는 고승이 입적하면 제자들이 국왕에게 諡號를 주청하고 이에 왕이 조칙을 내려 시호와 塔號를 하사하고 근신에게 碑文을 짓도록 하여 승비를 건립하는 것이 상례였다.[4] 고승의 승비는 해당 고승 문도들의 거점 사찰에 건립되었고, 그들에 의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되었다. 승비를 남긴 고승의 문도들은 유력한 승려의 후계자라는 명예에 더하여 상당한 규모의 사찰을 자신들의 거점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면서 불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5] 승비 건립과 관련된 이런 불교계의 관심은 조선시대에도

4) 정병삼,「高麗 高僧 碑文 譯註의 과제와 방향」,『고려시대연구』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11-13면.
5) 최연식,「高麗時代 高僧의 僧碑와 門徒」,『한국중세사연구』30, 한국중세사학회, 2013, 9-31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승비의 건립은 스승을 추숭하는 기본적인 목적에 더하여 건립 주체들의 교계에서의 위상 확보와 긴밀한 연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에는 승려를 추숭하는 비를 건립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승 탑비를 건립하기 위한 여건인 왕사 국사제도가 폐지된 데 연유한다. 승려들이 입적하고 그 僧塔을 건립한 예는 함허기화, 신미, 학열 등을 비롯하여 적지 않지만, 고승들을 기리는 碑가 건립되지 않은 것은 성리학 사회에서 현저하게 낮아진 불교계의 위상으로 말미암은 것일 것이다. 조선 전기의 승비로는 유일하게 태조가 왕사로 책봉한 先覺王師 無學自超(1327~1405)의 비가 그의 입적 후 1407년에 회암사에 건립된 예가 있을 뿐이다.[6]

그런데 임란 이후 17세기 초반부터 전란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들이 일시에 대거 중창되고 불교는 일반인들에게 신앙을 담당하는 역할로 그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청허나 사명 등에게 八道都摠攝과 같은 직함을 준 데서 보듯이 전란에 참여하여 얻은 공식 인정으로 승려들의 활동도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활발해졌고, 승려들의 숫자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芙蓉靈觀의 동문 제자인 淸虛休靜은 문도 1000, 浮休善修는 문도 700을 헤아릴만큼 많은 승려들이 활동하였고, 이렇게 다수의 승려들이 활동하는 불교계의 양상은 19세기까지 유지되었다.

특히 청허 계파의 문도들은 크게 鞭羊派・四溟派・逍遙派・靜觀派의 4대 門派로 나뉘어 경쟁적으로 번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자신들의 문파에서 조사를 추모하려는 분위기 또한 고조되었다. 계파는 소의경전과 교학 체계를 공유하는 교종 종단이나, 법맥과 禪風을 같이 하는 선종 종파나 교학 이론의 계승을 전제로 한 학파와는 다른 것으로, 조선후기 系派는 선종의 법맥 전승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면서 法統과 계파 인식을 공유하였다.[7]

---

6) 大智國師粲英(1393년), 普覺國師混脩(1394년), 正智國師智泉(1398년)의 비가 선초에 건립되기도 했으나, 이들은 고려불교의 유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111-113면

청허의 탑과 비가 그가 활동한 주 무대인 묘향산 보현사와 금강산 백화암 외에도 해남 대흥사와 밀양 표충사 등 여러 곳에 건립된 것이 문파들의 법통 주장과 계승 의식을 잘 말해 준다. 고려 때 고승들의 탑과 비는 1기가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고려말에 태고와 나옹의 문도들이 경쟁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스승의 탑을 여러 곳에 세운 적이 있다. 태고의 탑과 비는 중흥사, 양산사, 소설암, 사나사 등 4곳에 세웠고, 나옹의 탑과 비는 회암사, 신륵사, 안심사, 영전사 등 4곳에 세웠다. 그러나 이후 그와 같은 풍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청허에 이르러 다시 여러 곳에 탑과 비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청허와 사명이 활동한 16세기 후반에 승려들은 대체로 한 곳에 일정하게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수행에 힘썼다. 따라서 그 연고가 있는 곳에 주석하는 문도들이 그곳에 스승의 기념물을 봉안하려는 풍조가 생겨났을 것이다. 청허 자신은 스승이 머물던 지리산 유역에서 출가하여 장년 이후 금강산과 묘향산에 주로 머물렀다.[8] 이로 인해 그의 문도들의 활동 무대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게 되었다. 소요파는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정관파는 덕유산, 계룡산, 종남산, 대흥사 등 호서와 호남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사명파는 금강산 지역이 중심이었고, 이 지역은 청허의 다른 제자인 제월과 기암의 활동 지역이기도 하였다. 편양파는 청허가 입적한 묘향산을 주 무대로 삼아 청허의 유풍을 계승하는 근거지로 정립하였다. 한편 청허계와 병립했던 부휴계는 지리산과 호남 호서 등을 활동 무대로 삼아 소요계와 겹치는 양상을 보였다.[9] 이와 같은 문파의 활동 지역은 승비의 건립지에 따라 명확하게 드러난다.

---

8) 鞭羊彦機, 「金剛山退隱國一都大禪師禪教都摠攝賜紫扶宗樹教兼登階普濟大師淸虛堂行狀」, 『淸虛集』, 『한국불교전서』 7-734; 李廷龜, 「有明朝鮮國國一都大禪師禪教都摠攝扶宗樹教登階普濟尊者西山淸虛堂休靜大師碑銘幷序」, 『韓國高僧碑文總集一朝鮮朝・近現代一』, 伽山佛教文化硏究院, 2000, 50-54면

9) 김용태, 앞의 책, 2010, 116-117면

〈표 1〉 17~18세기 건립 승비

번호	건립년	승비	생몰년	찬자	서자	전액	수록자료	金石集帖
1	1612	陜川海印寺 四溟大師惟政碑	1544-1610	許筠	楊萬世	楊萬世	고승비문 통사	金石集帖
2	1615#	報恩法住寺 浮休大師善修碑	1543-1615	處能	·	·	고승비문 송광사고	·
3	1632	淮陽白華庵 淸虛大師休靜碑	1520-1604	李廷龜	申翊聖	申翊聖	고승비문 유점사지	金石集帖
4	1632	寧邊普賢寺 玩虛大師圓俊碑	1530-1619	三一	三一	三一	고승비문	金石集帖
5	1636	鐵原深源寺 霽月大師敬軒碑	1544-1633	申翊聖	李珖	李珖	고승비문 유점사지	金石集帖
6	1645	寧邊普賢寺 鞭羊大師彦機碑	1581-1644	李景奭	曺文秀	呂爾徵	고승비문	金石集帖
7	1645	淮陽白華庵 鞭羊大師彦機碑	1581-1644	李明漢	李珖	李珖	고승비문 유점사지	金石集帖
8	1646	華城丹光寺 禪華大師敬琳碑	1566-1643	鄭斗卿	洪竣	呂爾徵	고승비문	·
9	1647	海南大興寺 淸虛大師休靜碑	1520-1604	張維	尹仁美	尹仁美	고승비문 대둔사지	·
10	1647	高城楡岾寺 松月大師應祥碑	1572-1645	鄭斗卿	吳竣	金光煜	고승비문	金石集帖
11	1647#	信川貝葉寺 松月大師應祥碑	1572-1645	李景奭	·	·	고승비문 백헌집	·
12	1647#	淮陽金剛山 松月大師應祥碑	1572-1645	金得臣	·	·	고승비문 백곡집	·
13	1647#	報恩法住寺 孤閑大師熙彦碑	1561-1647	李景奭	·	·	고승비문 백헌집	·
14	1649#	鐵原深源寺 逍遙大師太能碑	1562-1649	李敏求	·	·	고승비문 동주집	·
15	1651	金堤金山寺 逍遙大師太能碑	1562-1649	李景奭	趙晋錫	趙晋錫	고승비문 소요당집	·
16	1652	鐵原深源寺 翠雲大師學璘碑	1575-1650	鄭斗卿	魯翁	魯翁	고승비문 유점사지	金石集帖

17	1653	高城楡岾寺 奇巖大師法堅碑	1552-1634	李敏求	吳竣	金光煜	고승비문 유점사지	金石集帖
18	1656	羅州雙溪寺 浩然大師太浩碑	1564-1652	李敏求	吳竣	呂爾徵	고승비문 동주집	金石集帖
19	1660	安城七長寺 碧應大師釋崇碑	1576-1657	鄭斗卿	吳竣	李俁	고승비문	金石集帖
20	1662	淮陽白華庵 虛白大師明照碑	1593-1661	李景奭	吳竣	李俁	고승비문 유점사지	金石集帖
21	1663	求禮華嚴寺 碧巖大師覺性碑	1575-1660	李景奭	吳竣	趙啓遠	고승비문 화엄사지	金石集帖
22	1664	報恩法住寺 碧嵓大師覺性碑	1575-1660	鄭斗卿	李俁	李楨	고승비문	
23	1668	金浦文殊寺 楓潭大師義諶碑	1592-1665	趙絅	李夏鎭	李瑞雨	고승비문 전등사지	金石集帖
24	1668	淮陽白華庵 楓潭大師義諶碑	1592-1665	李端相	李俁	李楨	고승비문 유점사지	金石集帖
25	1669#	高城楡岾寺 選佛大師義崇碑	1605-1669	道安			고승비문 월저집	
26	1671	高城楡岾寺 春坡大師雙彦碑	1591-1658	鄭斗卿	金佐明	李俁	고승비문 유점사지	金石集帖
27	1671#	天安廣德寺 淸霄大師熙玉碑	1603-1671	柳應運	李俁		고승비문	
28	1674	安邊釋王寺 翠微大師守初碑	1590-1668	金錫胄	洪錫龜	呂聖齊	고승비문 식암유고	金石集帖
29	1675	海南大興寺 楓潭大師義諶碑	1592-1665	金宇亨	金宇亨	李楨	고승비문 대둔사지	
30	1676	達城龍淵寺 松坡大師覺敏碑	1596-1675	李殷相	金宇亨	金萬重		金石集帖
31	1677	光陽松川寺 悔隱長老應俊碑	1587-1672	處能	李俁		고승비문 백곡집	
32	1680#	金堤金山寺 白谷大師處能碑	1617-1680	崔錫鼎			고승비문 명곡집	
33	1681	寧邊普賢寺 楓潭大師義諶碑	1592-1665	趙宗著	李俁	李偘	고승비문	金石集帖

34	1681#	高城楡岾寺 虛谷大師懶白碑	1608-1681	金錫胄			고승비문 식암유고	金石集帖
35	1682#	金化水泰寺 退休大師時勝碑	1607-1682	金普	洪命箕	洪命箕	고승비문 유점사지	
36	1684#	海南大興寺 醉如大師三愚碑	1622-1684	韓致應			고승비문 대둔사지	
37	1686	寧邊普賢寺 松坡大師覺敏碑	1596-1675	姜尙齊	姜尙齊	姜尙齊		金石集帖
38	1690	洪川壽陁寺 紅藕大師善天碑	1611-1689	淨源			고승비문 건봉사지	
39	1694	龍岡寶林寺 蓮華大師升誠碑	1624-1693	道安			고승비문	
40	1694	寧邊普賢寺 靈巖大師智圓碑	1643-1693	尹權瑎	尹權瑎		고승비문	
41	1694#	寧邊普賢寺 松溪大師圓輝碑	1630-1694	秋鵬			고승비문 설암잡저	
42	1699#	寧邊普賢寺 松巖大師性眞碑	1628-1699	秋鵬			고승비문 설암잡저	
43	1701	順安曺溪庵 靈虛大師天雨碑	1653-1701	法宗			고승비문 허정집	
44	1704	達城龍淵寺 東雲大師慧遠碑	1626-1702	李益馥	郭在三	郭在一	사찰자료집	
45	1704#	寶城澄光寺 月潭大師雪霽碑	1632-1704	姜鋧			고승비문	
46	1706#	寶城澄光寺 雪巖大師秋鵬碑	1651-1706	徐宗泰			고승비문 만정당집	
47	1706#	平原東山寺 雪巖大師秋鵬碑	1651-1706	道安			고승비문 월저집	
48	1708	寧邊普賢寺 雪巖大師秋鵬碑	1651-1706	月渚	月渚	月渚	고승비문	金石集帖
49	1708	海南大興寺 華岳大師文信碑	1629-1707	惠藏			고승비문 아암유고	
50	1710	大邱把溪寺 玄應大師靈源碑	1651-1710				고승비문	

51	1711	寧邊普賢寺 淸虛大師休靜碑	1520-1604	李廷龜	申翊聖	申翊聖		金石集帖
52	1716	寧邊普賢寺 月渚大師道安碑	1638-1715	閔昌道	閔昌道	閔昌道	고승비문	金石集帖
53	1716	聞慶鳳巖寺 霜峯禪師淨源碑	1627-1709	李德壽	尹淳	尹淳	고승비문	
54	1716	寧邊普賢寺 雲峯大師靈佑碑	1636-1715	閔昌道	閔昌道	閔昌道	고승비문	金石集帖
55	1716#	全州松廣寺 寒溪大師玄一碑	1630-1716				고승비문 한계집	
56	1720#	安岳燃燈寺 白華大師泗珠碑	1639-1720	法宗			고승비문 허정집	
57	1722	高城鉢淵寺 雪峰大師自澄碑	1638-1717	屛山	月谷		고승비문	
58	1725	泰川陽和寺 碧潭大師志閑碑	1644-1725	金晉來			고승비문	
59	1728	寧邊普賢寺 雲坡大師義俊碑	1647-1728	金時鼎	金時鼎	金時鼎		金石集帖
60	1730	高城乾鳳寺 雲坡大師淸眼碑	1651-1717	李宜顯	洪得福	兪拓基	고승비문 건봉사지	金石集帖
61	1730#	德原明寂寺 普運大師道一碑	1661-1730	趙龜命	弘〇			金石集帖
62	1731	高城乾鳳寺 牧羊大師靈眼碑	1641-1724	李德壽	徐命均	李徵夏	고승비문 건봉사지	金石集帖
63	1737	海南美黃寺 緘坡大師德閑碑	1618-1693				고승비문	
64	1738	蔚珍佛影寺 養性禪師惠能碑	1622-1696	崔錫鼎			고승비문 명곡집	
65	1738	寧邊普賢寺 慈應大師信和碑	1658-1737	李德壽	李德壽	李德壽	고승비문 서당집	金石集帖
66	1739	海南大興寺 月渚大師道安碑	1638-1715	李德壽	徐命維	李德壽	고승비문 대둔사지	
67	1739	海南大興寺 雪巖大師秋鵬碑	1651-1706	李德壽	徐命維	李德壽	고승비문 대둔사지	

68	1739	海南美黃寺 雪峰大師懷淨碑	1678-1738	金鎭商			고승비문 대둔사지	金石集帖
69	1739	高城乾鳳寺 海谷大師處珍碑	1652-1726	雙式	翼鵬	雙式	고승비문 건봉사지	
70	1740	寧邊普賢寺 月峰大師正佑碑	1678-1740	朴弼琦	朴弼琦	朴弼理		金石集帖
71	1741	寧邊普賢寺 虛靜大師法宗碑	1670-1733	李重協	楊萬元	楊萬元	고승비문	金石集帖
72	1742	密陽表忠祠 西山大師碑	1520-1604	李雨臣	尹得和	曺命敎	고승비문	金石集帖
73	1742	密陽表忠祠 松雲大師碑	1544-1610	李宜顯	金鎭商	兪拓基	고승비문	金石集帖
74	1742	黃州道觀寺 幻夢大師宏闊碑	1680-1741	趙顯命	曺命敎	曺命敎	고승비문 통사	金石集帖
75	1743	金化長淵寺 月波大師秋欽碑	1663-1741				고승비문 유점사지	
76	1743	金化長淵寺 鳳巖大師眞覺碑	1668-1740				고승비문 유점사지	
77	1743	金化長淵寺 龍淵大師明識碑	1674-1742				고승비문 유점사지	
78	1744	金堤金山寺 南嶽大師泰宇碑	?-1732	吳光運			고승비문 남악집	
79	1744	金泉靑巖寺 晦庵大師定慧碑	1685-1741	趙顯命	徐命均	金相福	고승비문 통사	
80	1746	寧邊普賢寺 碧虛大師圓照碑	1658-1735	吳光運	李德顯	李德顯		金石集帖
81	1749	南原山內面 淨蓮大師法性碑	?-1749	愷冠	宇觀		고승비문	
82	1752	大邱瑜伽寺 洛巖大師義訥碑	1666-1737	申維翰	柳潘		고승비문 청천집	
83	1753	寧邊普賢寺 天然大師智文碑	1681-1749	金陽澤	金陽澤	金陽澤		金石集帖
84	1753	高城乾鳳寺 月峰大師雙式碑	1679-1746	精頤	宇平		고승비문 건봉사지	

85	1754	淸道雲門寺 雪松大師演初碑	1676-1750	李天輔	李鼎輔	李益輔		金石集帖
86	1754	梁山通度寺 雪松大師演初碑	1676-1750	李天輔	李鼎輔	李益輔		
87	1754	吉州普賢寺 雪潭大師靈律碑	1690-1750	趙顯命	曺命敎	曺命敎	고승비문	
88	1755	延白護國寺 寶月大師泰雄碑	1681-1754	沈師周	敎聳	敎聳		金石集帖
89	1758	海南大興寺 萬化大師圓悟碑	1694-1758	李毅敬			고승비문 대둔사지	
90	1760	襄陽靈穴寺 靈岩大師妙岑碑	1669-1760	震一			고승비문 건봉사지	
91	1762	海南大興寺 喚醒大師志安碑	1664-1729	洪啓禧	曺命采	洪啓禧	고승비문 대둔사지	
92	1762	海南大興寺 虎巖大師體淨碑	1687-1748	洪啓禧	曺命采		고승비문 대둔사지	
93	1762	寧邊寶月寺 玉坡大師碑	1681-1762	金提鐸			고승비문	
94	1762	長淵鶴林寺 雪影大師思俊碑	1681-1751	諿諶	諿諶	諿諶		
95	1763	平康寶月寺 華月大師聖訥碑	1690-1763	徐命膺			고승비문 통사	
96	1763#	淳昌鳳泉寺 嵋月大師一性碑	1684-1763	申景濬			고승비문 여암유고	
97	1764	海南美黃寺 松坡大師覺暄碑	1686-1762	李毅敬	桐岡		고승비문 대둔사지	
98	1764	海南美黃寺 碧霞大師大愚碑	1676-1763	李毅敬	桐岡		고승비문 대둔사지	
99	1764	海南美黃寺 錦河大師優閑碑	1696-1759		桐岡		고승비문 해남	
100	1765	金泉靑巖寺 龍巖大師彩晴碑	1692-1754	振哲	白啓煥		고승비문	
101	1766	順天松廣寺 栢庵大師性聰碑	1631-1700	金相福	金相肅	洪啓禧	고승비문 송광사고	

102	1767	高城神溪寺 洛庵首座思信碑	1694-1765				고승비문 유점사지	
103	1767	楊州奉印寺 楓巖大師取愚碑	1695-1766	李惟簡	尹行醇	曺允亨	고승비문 봉선사지	
104	1768	陜川三嘉縣 月城大師心悅碑	1694-1766	遊鵬			고승비문	
105	1769	金泉靑巖寺 性月大師智性碑	1683-1750	泓宥	李馨白	李馨白	고승비문	
106	1769	金泉靑巖寺 鏡月大師泰鑑碑	1690-1768	鄭東羽	李賢復	李賢復	고승비문	
107	1769	洪川壽陀寺 瑞谷大師粲淵碑	1702-1768	金相福	金相肅	金相肅	고승비문 통사	
108	1770	高城乾鳳寺 日庵大師精頤碑	1674-1765		金相肅		고승비문 건봉사지	
109	1700	淳昌福泉寺 雪潭大師自優碑	1709-1770	桐岡			고승비문 설담집	
110	1770	金化水泰寺 晦雲大師大鈞碑	1723-1763	學贊			고승비문 유점사지	
111	1770	金化長淵寺 錦波大師三瑀碑	1725-1762				고승비문 유점사지	
112	1770#	安邊釋王寺 翫月大師軌泓碑	1714-1770	黃景源			고승비문 통사	
113	1770#	北靑三聖庵 碧峰大師體洽碑	1691-1770	申景濬			고승비문 여암유고	
114	1771	高城乾鳳寺 松岩大師義泉碑	1716-1762	勝還	宇平	宇平	고승비문 건봉사지	
115	1771	三陟新興寺 花雲大師玄辰碑	1743-1771				고승비문	
116	1772	漆谷松林寺 箕城大師快善碑	1693-1765	李彌	尹東暹		고승비문 상봉문보	
117	1773	海南大興寺 涵月大師海源碑	1691-1770	金相福	李澤遂	金斗烈	고승비문 대둔사지	
118	1773	吉州普光寺 石峰大師玄卞碑	1701-1773	黃景源	申晦	金相福	고승비문	

119	1773	高城乾鳳寺 桂雲大師永裕碑	1752-1772	翰爲			고승비문 건봉사지	
120	1774	高城楡岾寺 楓嶽大師普印碑	1701-1769	李福源	曺允亨	曺允亨	고승비문 유점사지	
121	1776	山淸深寂寺 秋波大師泓宥碑	1718-1774	趙載得	徐懋修		고승비문 추파집	
122	1779	陜川栗谷寺 鳳巖大師采歡碑	?-1778	蔡濟恭	姜世晃		고승비문 번암집	
123	1781	安城七長寺 海月大師敬律碑	1693-1780	蔡濟恭			고승비문 번암집	
124	1782	順天仙巖寺 霜月大師璽錂碑	1687-1767	李澱	蔡弘履	蔡弘履	고승비문 전남금석	
125	1782	海南大興寺 霜月大師璽錂碑	1687-1767	蔡濟恭	蔡濟恭		고승비문 대둔사지	
126	1782	寧邊普賢寺 南坡大師陸坦碑	?-1781	徐浩修	曺允亨	曺允亨	고승비문	
127	1782#	寧邊普賢寺 定有大師碑	1717-1782	蔡濟恭			고승비문 번암집	
128	1786	大同松泰寺 淨蓮大師日泂碑	1696-1783	世雄	麗鑑		고승비문	
129	1787	金泉直指寺 秋潭大師琯澄碑	1702-1778	姜杭	姜世白		고승비문	
130	1788	高城神溪寺 懶雲大師擧遐碑	1709-1782	權啓萬	權亨萬	權亨萬	고승비문 유점사지	
131	1789	束草神興寺 龍巖大師體照碑	1713-1779	李福源	姜世晃	姜世晃	고승비문 건봉사지	
132	1790#	咸陽長水寺 文谷大師永誨碑	1720#1790#	蔡濟恭			고승비문 번암집	
133	1792	束草神興寺 大圓大師無外碑	1714-1791	兪彦鎬	曺允亨	兪彦鎬	고승비문 건봉사지	
134	1792	海州神光寺 雪月大師快帖碑	1712-1792	柳健五	池漢朝	池漢朝		

135	1794#	海南大興寺 晶巖大師卽圓碑	1738-1794	金鎭商			고승비문 대둔사지	
136	1794#	康津萬德寺 晶巖大師卽圓碑	1738-1794	洪起燮			고승비문 만덕사지	
137	1796	高敞禪雲寺 雪坡大師尙彦碑	1707-1791	蔡濟恭	蔡濟恭		고승비문 번암집	
138	1797	議政府望月寺 天峰大師泰屹碑	1710-1793	李忠翊	李忠翊		고승비문 통사	
139	1799	高城乾鳳寺 大雲大師宇平碑	1727-1798	大活	置寬	近喆	고승비문 건봉사지	
140	1800	高城乾鳳寺 泗溟大師紀蹟碑	1544-1610	南公轍	許晛	許晛	고승비문 건봉사지	

17~18세기에 건립한 승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약 140기가 된다.[10] 이 글에서는 『금석집첩』에 수록한 승비와 대조하기 위해 1760년까지 건립된 승비 90기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17세기에 처음 건립한 승비는 1610년에 입적한 사명유정의 비를 1612년에 해인사에 건립한 것이다.[11] 그리고 서산대사 청허휴정은 1604년에 입적했지만 그의 비는 1632년에 보현사와 백화암에 건립되었다. 그리고 1647년에 대흥사에, 1790년에 표충사에 다시 서산의 비가 건립되었다. 이들을 비롯하여 17세기에는 전반기 14기, 후반기 28기 등 모두 42기의 승비가 건립되었다. 1760년까지의 18세기에는 48기의 승비가 건립되었다. 이들 승비 자료는 『금석집첩』에 41기가 수록되어 가장 많은 자료를 전하고 있고, 유점사지에 16기, 건봉사지에 13기, 대둔사지에 14기 등 사찰 기록에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전하고 있다. 이들 寺誌 자료에 견주어 보더라도 『금석집첩』에

10) 이 숫자는 현재 각종 자료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승비의 숫자이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승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체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개략적인 숫자를 제시한다. 손성필은 앞의 글에서 17세기 38기, 18세기 84기를 들고, 17세기 승비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여기에 각종 자료에서 찾은 비를 추가하였다. 최원식은 앞의 1998 논문에서 1800년까지 118기, 1760년까지 83기의 승비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140기의 목록에는 1648년에 건립한 圓覺摩訖(1379~1459)의 비, 1653년에 건립한 道詵의 비, 1678년에 건립한 知訥의 비, 1693년에 건립한 守眉의 비, 1701년에 건립한 冲止의 비, 1711년에 건립한 惠勤의 비는 이 시기에 활동한 이가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11) 「陜川海印寺四溟堂惟政大師石藏碑文」, 李智冠 編, 앞의 책, 2000, 86-91면.

수록한 승비 자료들은 숫자도 많고 지역적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그 자료적 의의가 크다.

〈표 2〉 17~18세기 승비의 지역적 분포

시기	계	京	江	忠	慶	全	黃	平	咸
17C 전	14	1	6	2	1	1	1	2	0
17C 후	28	2	9	2	1	7	0	6	1
18C 전	39	0	7	0	7	10	2	12	1
18C 후	59	3	18	0	12	15	3	5	4
계	140	6	40	4	21	33	6	25	6

〈표 3〉 1601-1760년 건립 승비의 지역적 분포

시기	계	京	江	忠	慶	全	黃	平	咸
17C 전	14	1	6	2	1	1	1	2	0
17C 후	28	2	9	2	1	7	0	6	1
18C	48	0	9	0	10	11	3	13	2
계	90	3	24	4	12	19	4	21	3

17~18세기의 승비는 몇몇 사찰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특징을 보인다. 140기의 자료 중에 사찰별 분포는 승비가 건립된 해당 시기의 불교계 활동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승비가 집중 건립된 사찰은 승려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곳임을 입증한다.

17세기에 건립된 42기의 승비 중에서 가장 많은 건립 예는 강원도에 15기가 건립된 것이다. 楡岾寺에 5기, 白華庵에 4기, 深源寺에 3기가 건립된 것을 비롯하여 金剛山 水泰寺 壽陁寺 등에도 승비가 건립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예가 각각 8기가 건립된 평안도와 전라도이다. 평안도는 普賢寺의 7기와 용강 보림사이다. 전라도는 大興寺에 3기, 金山寺에 2기가 건립되었고, 나주 雙溪寺 華嚴寺 松川寺에도 건립 예가 있다. 경상도는 海印寺 龍淵寺에 각 1기가 건립되었다. 이밖에 충청도는 法住寺 3기 등 모두 4기가, 경기 3기, 황해와 함경도에 각 1기의 승비가 건립되었다.

18세기에는 48기의 승비 중에서 평안도에는 보현사 10기를 비롯하여 모두 13기가 건립되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강원도에는 乾鳳寺 4기, 長淵寺 4기 등 9기가 건립되었다, 남부 지역에서는 전라도에는 대흥사 4기, 美黃寺 2기,

澄光寺 2기 등 11기, 경상도에는 靑巖寺 4기 등 여러 지역에 고루 10기가 건립되었다. 이밖에 황해도에 4기, 함경도에 3기, 경기도에 3기가 건립되었다.

17~18세기를 전체로 보면 보현사에는 17세기에 7기, 18세기에 10기가 건립되어 모두 17기의 승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楡岾寺에는 17세기에만 5기가, 白華庵에는 17세기에만 4기, 乾鳳寺에는 18세기에만 4기, 大興寺에는 17세기 3기, 18세기 4기, 합 7기가, 美黃寺에는 18세기에만 2기가 건립되었다. 다만 1760~1800년 시기에 대흥사에 5기, 미황사에 3기, 건봉사에 5기가 건립되어, 이들 사찰의 승비 건립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이들 승비의 주요 사찰별 분포를 통해 보현사에서는 17~18세기에 두루 활발한 활동을 보인 승려들이 이어졌고, 17세기에는 유점사, 백화암 등이, 18세기에는 건봉사, 미황사 등이 크게 활동을 보였으며, 대흥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활발한 형세를 보였지만 17세기보다 18세기에 더 두드러졌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보현사 등 6개 주요 사찰에 건립된 승비는 모두 39기이며, 이들 외에 51기의 승비가 전국의 사찰에 고루 건립되었다. 1기 이상 건립된 사찰로는 법주사 심원사 금산사 장연사가 각 3기, 용연사 징광사 표충사가 각 2기이다. 그리고 1기가 건립된 사찰은 33곳에 이른다.

17~18세기에 걸쳐 보현사에 가장 많은 승비가 건립된 것은 이 시기 보현사가 승려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사찰임을 입증한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청허가 이곳에서 활동했던 전통이 자리잡고 있다. 건봉사가 다음으로 두드러진 사례를 보이는 것은 금강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청허와 사명의 전통에 더하여, 전국의 산사를 순례하는 승려들의 발길이 금강산에 많이 닿았던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18세기에 대흥사의 건립 사례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즈음에 12대 宗師와 12대 講師를 배출했다고 자부할 만큼 전국 제일의 修行과 講經의 전당으로 꼽혔던 활발한 활동에 연유한다. 18세기에 계파 문파를 막론하고 수많은 講學의 대가들이 배출되어 수백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講會가 성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편양파와 소요파가 공조하여 12대 종사와 강사를 배출하고 이를 매개로 팔도의 宗院을 표명한 대흥사에서 볼 수 있다.[12] 미황사 또한 대흥사의 활동 범위 안에 들어있는 입지 여건으로 인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승비가 건립되었다.

대흥사의 이 추세는 19세기 전반까지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仙巖寺가 강학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승비 건립의 추이도 변화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 시기 승려들은 한 사찰에 집중적으로 머물지 않고 인연 따라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다니며 수행에 열중하고 학인들을 지도하였다. 이런 행적을 보였던 승려가 입적하면, 그가 주석한 적이 있던 절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승탑을 세우고 승비를 건립하고자 했다.

이 시기 승비 중에서 동일 승려의 비가 중복 건립된 사례는 청허대사의 비가 백화암・대흥사・보현사・표충사 등에 4기가 건립된 것을 비롯하여, 楓潭義諶의 비가 백화암・문수사・보현사・대흥사에 4기, 雪巖秋鵬의 비가 징광사・보현사・동산사・대흥사에 4기 등이 건립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사명대사의 비는 해인사・표훈사・건봉사에 3기가 건립되었고, 松月應祥의 비도 유점사・패엽사・금강산에 3기가 건립되었다. 2기의 승비가 건립된 이는 逍遙太能(심원사・금산사), 鞭羊彦機(보현사・백화암), 碧巖覺性(화엄사・법주사), 松坡覺敏(용연사・보현사), 月渚道安(보현사・대흥사), 雪松演初(운문사・통도사), 霜月璽封(대흥사・선암사), 晶巖卽圓(대흥사・만덕사) 등 8인이 있다.

비의 건립 숫자가 반드시 비 주인공의 활동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동일인의 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문도들이 성황을 보여 각 계파에서 활동 근거지마다 비를 세워 자신들의 전통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金石集帖』수록 17~18세기 승비와 불교계 흐름의 변화

『금석집첩』에는 모두 41기의 조선시대 승비가 수록되어 있다. 승비의 주인공은 1612년에 해인사에 비를 건립한 四溟惟政을 시작으로 1755년에 연백 護國寺에 비를 건립한 寶月泰雄까지이다. 41기 중에 청허의 비가 3기, 사명의 비 2기, 편양의 비 2기, 설암의 비 3기, 송파의 비가 2기이어서, 승비는 모두 35인의 승려에 대한 41기의 비가 된다.

12) 김용태, 앞의 책, 2010, 244-246면.

〈표 4〉 金石集帖 수록 17~18세기 승비

번호	승비	승명		건립	찬자	서자	전자	자료 수록					
1	陜川海印寺 四溟大師碑	惟政	朝	1612	許筠	楊萬世	楊萬世	總覽		大系			
2	淮陽白華庵 淸虛大師碑	休靜	朝	1632	李廷龜	申翊聖	申翊聖	總覽					
3	寧邊普賢寺 玩虛大師石鐘銘	圓俊	朝	1632	三一	三一	三一	總覽					
4	鐵原深源寺 霽月大師碑	敬軒	朝	1636	申翊聖	李珖	李珖					淸玩	大東
5	寧邊普賢寺 鞭羊大師碑	彦機	*朝*	1645	李景奭	曺文秀	呂爾徵	總覽				淸玩	大東
6	淮陽白華庵 鞭羊大師碑	彦機	朝	1645	李明漢	李珖	李珖	總覽				淸玩	
7	高城楡岾寺 松月大師碑	應祥	朝	1647	鄭斗卿	吳竣	金光煜	總覽					
8	鐵原深源寺 翠雲大師碑	學璘	朝	1652	鄭斗卿	魯翁	魯翁	總覽					大東
9	高城楡岾寺 奇巖大師碑	法堅	朝	1653	李敏求	吳竣	吳竣						
10	羅州雙溪寺 浩然大師碑	太湖	朝	1656	李敏求	吳竣	金光煜						
11	安城漆長寺 碧應大師碑	釋崇	朝	1660	鄭斗卿	吳竣	李俁			大系			
12	寧邊普賢寺 虛白大師碑	明照	朝	1662	李景奭	吳竣	李俁	總覽					
13	求禮華嚴寺 碧巖大師碑	覺性	朝	1663	李景奭	吳竣	趙啓遠	總覽		大系			
14	淮陽白華庵 楓潭大師碑	義諶	*朝*	1668	李端相	李俁	李楨						大東
15	金浦文殊寺 楓潭大師碑	義諶	朝	1668	趙絅	李夏鎭	李瑞雨	總覽					大東
16	高城楡岾寺 春坡大師碑	雙彦	朝	1671	鄭斗卿	金佐明	李俁	總覽				淸玩	
17	安邊釋王寺 翠微大師碑	守初	朝	1674	金錫胄	洪錫龜	呂聖齊						
18	達城龍淵寺 松坡大師碑	覺敏	朝	1676	李殷相	金宇亨	金萬重						
19	高城楡岾寺 虛谷大師碑	懶白	*朝*	1681	金錫胄	柳以升	趙泰期					淸玩	
20	寧邊普賢寺 楓潭大師碑	義諶	朝	1681	趙宗著	李俁	李偘	總覽					

21	寧邊普賢寺 松坡大師碑	覺敏	**朝**	1686	姜尙齊	姜尙齊	姜尙齊						
22	寧邊普賢寺 靈巖大師碑	智圓	覊	1694	尹權瑎	尹權瑎	尹權瑎	總覽					
23	寧邊普賢寺 雪巖大師碑	秋鵬	**朝**	1708	月渚	月渚	月渚						
24	寧邊普賢寺 淸虛大師碑(模)	休靜	覊	1711	李廷龜	申翊聖	申翊聖						
25	寧邊普賢寺 月渚大師碑	道安	朝	1716	閔昌道	閔昌道	閔昌道	總覽					
26	寧邊普賢寺 雲峯大師碑	靈佑	朝	1716	閔昌道	閔昌道	閔昌道						
27	寧邊普賢寺 雲坡大師碑	義俊	**朝**	1728	金時鼎	金時鼎	金時鼎						
28	高城乾鳳寺 雲坡大師碑	淸眼	朝	1730	李宜顯	洪得福	兪拓基			大系			
29	高城乾鳳寺 牧羊大師碑	靈眼	朝	1731	李德壽	徐命均	李徵夏			大系			
30	德原明寂寺 普運大師碑	道一	**朝**	#1730	趙龜命	弘○							
31	寧邊普賢寺 慈應大師碑	信和	覊	1738	李德壽	李德壽	李德壽						
32	海南美黃寺 雪峯大師碑	懷淨	朝	1739	金鎭商	金鎭商	金鎭商						
33	寧邊普賢寺 月峯大師碑	正佑	朝	1740	朴弼琦	朴弼琦	朴弼理						
34	寧邊普賢寺 虛靜大師碑	法宗	朝	1741	李重協	楊萬元	楊萬元						
35	密陽表忠祠 西山大師碑	休靜	朝	1742	李雨臣	尹得和	曺命敎			大系			
36	密陽表忠祠 松雲大師碑	惟政	朝	1742	李宜顯	金鎭商	兪拓基			大系			
37	黃州道觀寺 幻夢大師碑	宏闊	覊	1742	趙顯命	曺命敎	曺命敎						
38	寧邊普賢寺 碧虛大師碑[13]	圓照	**朝**	1746	吳光運	李德顯	李德顯						
39	寧邊普賢寺 天然大師碑	智文	**朝**	1753	金陽澤	金陽澤	金陽澤						
40	淸道雲門寺 雪松大師碑	演初	朝	1754	李天輔	李鼎輔	李益輔			大系			
41	延白護國寺 寶月大師碑	泰雄	**朝**	1755	沈師周	敎曾	敎曾						

41기는 지역적으로 보현사가 있는 평안도가 15기 수록되었고, 유점사 4기, 백화암 4기, 건봉사 2기, 심원사 2기가 수록된 강원도가 12기이다. 경기도는 칠장사 문수사의 2기, 경상도는 해인사, 표충사(2기) 용연사 운문사의 모두 5기이며, 전라도는 쌍계사 화엄사 미황사의 3기이고, 황해도는 도관사 호국사의 2기, 함경도는 석왕사 명적사의 2기가 수록되었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이들 승비를 이 시기에 해당하는 1600~1760년으로 한정하여 주요 사찰의 승비 수록 현황을 비교해 보면 사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석집첩』에 보현사의 승비는 모두 15기가 수록되었다.[14] 이들은 玩虛圓俊(1632년), 鞭羊彦機(1645년), 楓潭義諶(1681년), 松坡覺敏(1686년), 靈巖智圓(1694년), 雪巖秋鵬(1708년), 淸虛休靜(1711년 模刻), 月渚道安(1716년), 雲峯靈佑(1716년), 雲坡義俊(1728년), 慈應信和(1738년), 月峰正佑(1740년), 虛靜法宗(1741년), 碧虛圓照(1746년), 天然智文(1753년)이다.

백화암의 승비는 4기로서, 淸虛休靜(1632년), 鞭羊彦機(1645년), 虛白明照(1662년), 楓潭義諶(1668년)이다. 유점사 승비는 4기가 수록되었는데,[15] 松月應祥(1647년), 奇巖法堅(1653년), 春坡雙彦(1671년), 虛谷懶白(1681년), 楓嶽普印(1774년)이다. 건봉사의 비는 雲坡淸眼(1730년), 牧羊靈眼(1731년)이 수록되었다.[16]

대흥사의 승비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淸虛休靜(1647년), 醉如三愚(1684년), 楓潭義諶(1692년), 華岳文信(1708년), 月渚道安(1739년), 雪巖秋鵬(1739년), 萬化圓悟(1758년)의 모두 7기가 있으나 1기도 수록되지 않았다. 미황사의 승비도 2기 중 雪峰懷淨(1739년)만 수록되었다.[17]

---

13) 碧虛圓照(1658~1735)의 비는 정병삼, 앞의 글, 2022, 42면 [표 2] 연번 67번 자료로 1686년 건립으로 소개하였으나, 벽허가 雪巖秋鵬(1651~1706)의 제자임과 찬자 吳光運의 연대와 비교하여 생몰년을 수정하고 건립년을 1746년으로 수정한다.

14) 『금석집첩』에 수록되지 않은 보현사비는 松溪圓輝(1630~1694), 松巖性眞(1628~1699)의 두 비가 있다. 이 두 비가 『금석집첩』 제작 시에 이미 산일된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15) 『금석집첩』에 수록되지 않은 유점사비는 選佛義崇(1605~1669)의 비가 있다.

16) 『금석집첩』에 수록되지 않은 건봉사비는 海谷處珍(1652~1726), 月峰雙式(1679~1746)의 비가 있다.

17) 『금석집첩』에 수록되지 않은 미황사비는 緘坡德閑(1618~1693)의 비가 있다.

〈표 5〉 1600~1760 건립 승비와 금석집첩 수록

	계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황해	평안	함경
전체승비	90	2	24	4	12	19	4	21	3
금석집첩	41	3	12	0	5	3	2	15	2

『금석집첩』의 제작 시기에 존재했던 주요 승비가 채집에 누락된 데 연유는 알 수 없다. 임란과 이후 남한산성 축성 등에 크게 활약했던 벽암각성의 비는 화엄사비는 수록되었지만 법주사비는 수록되지 않아 비 주인공에 따른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백화암 보현사 표충사의 비는 수록했으나 대흥사비는 수록하지 않은 청허의 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법주사의 벽암비와 지척에 있는 송시열 찬 「俗離山事實記碑」는 수록되었다.[18] 『금석집첩』 제작을 시작한 김재로는 그 사전 작업이라 할 수 있는 『金石記』를 편찬하여 3,767종에 이르는 자료를 수록했는데, 해남 지역의 금석문은 『금석집첩』에 수록한 미황사 설봉회정의 비 외에는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19] 이는 비문 채집 과정에서 일정한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금석문 자료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비문의 찬자나 서자의 명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일정한 의도에서 목록을 작성하고 채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문 자료 수집시에 작업자들의 관점이나 활동 범위에 따른 현상으로 일정 지역이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금석집첩』에 비문이 수록된 35인은 활동 지역에 시기별로 일정한 추이를 보인다. 35인의 승려들은 계파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그 추세에는 차이가 있다. 淸虛系에서 가장 장년에 속하는 四溟派는 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로 법맥이 계승되며 활동했음을 이 자료들은 보여주고 있다. 사명-松月應祥-春坡雙彦-虛谷懶白-雲坡淸眼은 표훈사에 비를 남긴 사명에 이어 4대에 걸쳐 단절 없이 유점사에 승비를 남김으로써 사명파가 유점사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활동을 이어갔음을 말해 준다. 사명파의 다른 흐름인 사명-松月應祥-虛白明照로 계승된 법맥은 백화암에 터전을 닦은 후 2대의 단절을 거쳐 靈巖智圓은 보현사에 비를 남겨, 이들의 흐름은 송월-춘파 계열에 비해 활동이

18) 宋時烈 撰 宋浚吉 書, 「記俗離山事實」(『金石集帖』 178 談책)
19) 박철상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天理大學 소장 『金石記』 사본에서 일정 지역 목록을 확인하였다.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상대적으로 미진했고 그 터전도 보현사로 변경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청허계의 靜觀派는 나주 쌍계사, 달성 용연사와 보현사, 안성 칠장사에 비를 남겨, 한 지역에 확고한 터전을 마련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법맥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청허계 逍遙派는 소요태능 자신이 금산사에 비를 남긴 후 곧바로 제자인 海運敬悅이 대흥사에 비를 남긴 후 醉如三愚-華岳文信-雪峰懷淨은 대흥사와 그 인근의 미황사에 비를 남겼다. 이런 추세가 소요파가 편양파와 합세하여 대흥사에서 주류를 이루도록 하였다. 대흥사의 활성화는 17세말부터 18세기까지 출가한 승도 수를 통해 확인된다. 대흥사에서는 이 시기에 10년당 260~220명의 많은 출가자를 배출했다.[20] 이와 같은 대흥사의 경영을 돕기 위해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승속이 66결이 넘는 토지를 시납한 것으로 『大芚寺畓庫』는 기록하였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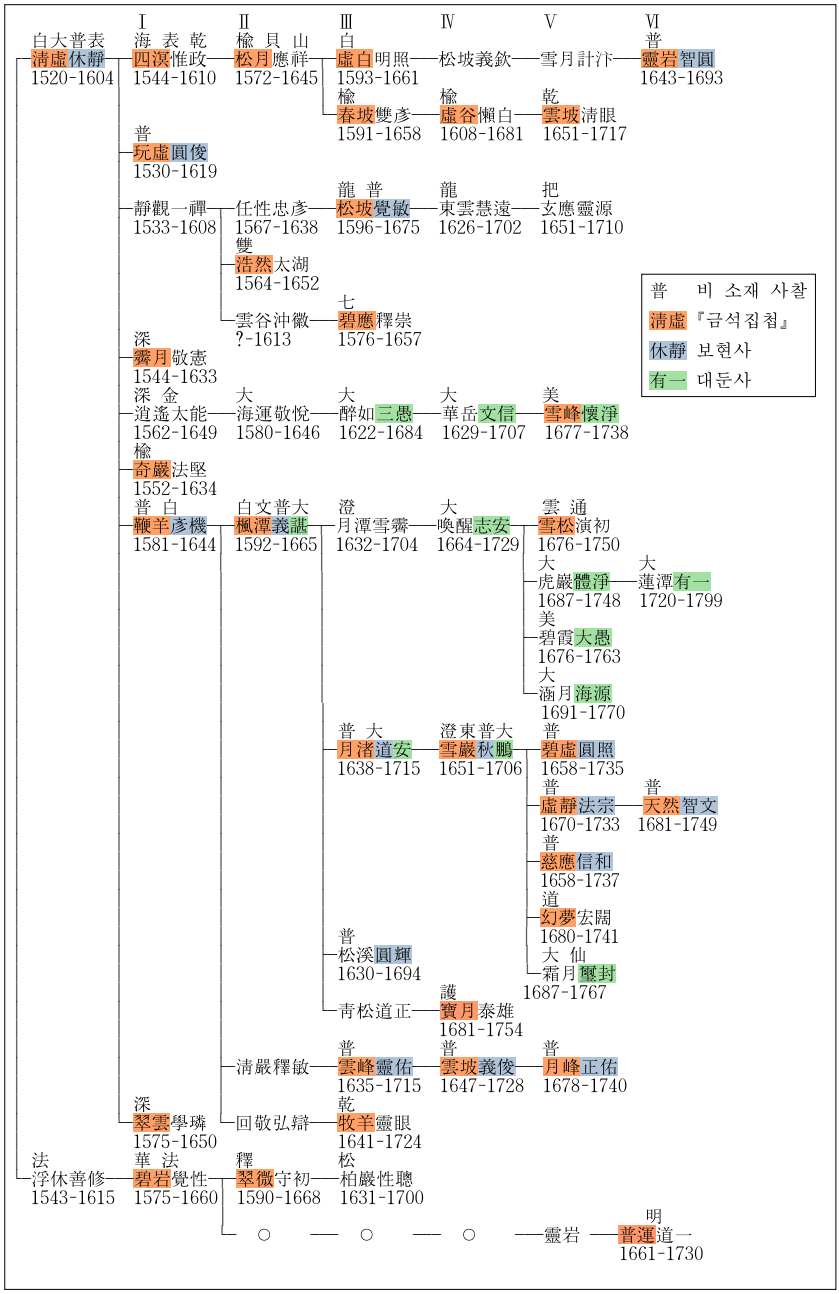
청허계 鞭羊派는 편양 자신은 보현사와 백화암에 비를 남겼고, 문하인 楓潭義諶-月渚道安-雪巖秋鵬-碧虛圓照와 벽허의 동문인 虛靜法宗・慈應信和는 모두 보현사에 비를 남겼다. 그런데 풍담의심-月潭雪霽-喚醒志安-虎巖體淨-蓮潭有一은 월담만 징광사에 비를 남겼을 뿐 풍담부터 연담까지 모두 대흥사에 비를 남겼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소요파와 합세하여 18세기 대흥사 강학 중흥의 중심을 이룬 것이다. 한편 편양파의 淸嚴釋敏-雲峯靈佑-雲坡義俊-月峰正佑 계열은 역시 보현사에 대를 이어 주석하며 비를 남겼다. 그리고 편양파 回敬弘辯을 이은 牧羊靈眼은 건봉사에 비를 남겼다. 이런 현상은 편양파의 활동 무대가 사명파의 것과 유사하지만 보현사와 금강산에 더하여 대흥사로 확대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조선 후기 승려 계열 중에 전체를 통틀어 가장 번성했던 편양파의 활동 무대가 보현사에서 대흥사로 바뀌는 경향을 『금석집첩』 수록 승비 자료는 여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

20) 『海南縣頭輪山大芚寺古今新戒僧寶案』(ABC, 00254_0001 v1, p.4a01)은 1662년부터 1814년까지 169년간 56회에 걸쳐 대흥사에서 계를 받은 3,878명의 명단을 수록했다. 수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10년 단위로 환산하였다.

21) 김선기,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와 변동」, 『한국사연구』 200, 한국사연구회, 2023, 314-318면

[표 6] 金石集帖 탁본 수록 승려 계보



이와 같은 추이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풍담의심-월저도안-설암추붕의 3대로 이어진 승려들이 보현사와 대흥사에서 모두 활동한 이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의 비는 보현사와 대흥사에 나란히 세워졌다. 풍담은 12대 종사의 제1대, 월저는 3대, 설암은 5대 종사에 이름을 올렸다. 2대와 4대는 소요파의 취여삼우와 화악문신이고, 화악의 제자 설봉회정은 8대 종사이다. 설암 문하의 상월새봉은 대둔사 9대 종사인데, 보현사에는 비가 없고 대흥사와 선암사에 비를 남겼다. 그리고 대둔사 6대 종사는 풍담의심-월담설제 문하의 환성지안이고, 환성의 제자인 벽하대우가 7대, 호암체정이 10대, 함월해원이 11대이며, 호암의 제자 연담유일이 마지막 12대 종사이다. 환성 문하의 3 제자가 나란히 12대 종사로 꼽힌 것이 이채롭다. 취여와 화악은 대흥사, 설봉은 미황사에 비를 남겼고, 환성과 함월과 연담은 대흥사, 벽하는 미황사에 비를 남겼다. 미황사를 대흥사 권역으로 묶어 보면 보현사에서 대흥사로의 변화 추이가 선명히 드러난다. 대둔사 12대 종사는 처음에 월저 계열에서 시작하여 소요파와 연합하고 다시 월담-환성 계열과 합쳐 형성된 그룹이다. 월저와 월담 모두 편양파 문하이므로 크게 보면 편양파와 소요파의 연합이지만, 세부적으로는 편양파 내에서도 미묘한 계열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22] 그리고 그 변화의 추이를 승비를 건립하여 추숭한 사실이 증명해 주는데, 『금석집첩』의 승비 자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풍담의심-월저도안-설암추붕의 3대의 비가 보현사와 대흥사에 병립된 것이 변화의 분기점이 된다. 이들의 활동 이후에 대흥사의 講學 활동이 성행하는 교단의 추이와 그대로 상응한다. 그러나 설암은 대흥사와 송광사에서 강사로 크게 이름을 떨친 후 다시 보현사에 돌아와 입적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흥사의 강맥은 편양파의 환성지안과 소요파 문도들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 편양파의 풍담 문하 중에서도 월저도안-설암추붕과 여타 계파들은 여전히 보현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금석집첩』에 수록된 보현사 자료들이 입증한다. 반면 편양파 풍담 문하 중에서 풍담-월담설제를 계승하는 환성지안과 그 문도들이

22) 김용태는 편양파가 대흥사에 진출하여 호남에 기반을 확보한 데는 설암의 제자로 상월새봉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132면)

소요파와 연합하여 대흥사 강맥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들의 활동 시기는 18세기 후반이고, 승비 또한 대흥사와 미황사에 주로 건립되었다. 그래서 이들의 승비는 『금석집첩』에 설송연초 외에는 수록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금석집첩』에 수록된 승비의 하한이 1755년에 건립된 보월대사비이므로 18세기 후반에 크게 활성화되었던 대흥사 종사들의 비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대흥사의 청허대사(1647년), 취여대사(1684년 경), 풍담대사(1692년), 화악대사(1708년), 월저대사(1739년), 설암대사(1739년) 등과 미황사의 설봉대사(1739년) 비 또한 『금석집첩』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대흥사 자료가 누락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동일 인물인 풍담대사의 보현사 문수사 백화암 보현사비는 모두 수록된 반면 대흥사비는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징이 이유일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금석집첩』에 수록한 41기의 승비 자료는 해당 시기의 불교계의 변화 추이를 실물로 그대로 입증해 준다는 불교사적 의의를 갖는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사명파 승려들은 보현사 유점사 건봉사 등 금강산과 묘향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했음을 보여 준다. 모두 8기가 수록되어 이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정관파 승려들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보현사에도 근거를 두었지만 중남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양상을 보여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인다. 소요파 승려들은 『금석집첩』 자료로는 가장 후대에 속하는 설봉의 미황사 비만 수록되었는데, 대흥사에 터전을 마련한 면모를 살짝 보여 준다. 편양파 승려들은 18기가 수록되어 주축을 이루며, 이중 보현사에 11기가 건립되어 그 중심이 보현사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동시에 보현사에서 대흥사로 추이가 변해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다.

『금석집첩』 수록 승비는 17세기에는 보현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18세기에는 보현사의 활동이 유지되면서 대흥사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는 변화를 말해 준다. 이는 17~18세기 불교계의 활동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금석집첩』에는 청허계와 병칭되던 부휴계의

승비는 화엄사의 碧巖覺性, 석왕사의 翠微守初, 덕원 명적사의 寶運道一의 3기에 지나지 않는 점이 이채롭다. 그나마 보운은 벽암 계열이기는 하나 그 선대도 분명하지 않을 정도이다. 법주사에 세웠던 浮休善修(1615년 경), 孤閑熙彦(1647년 경), 碧巖覺性(1664년)의 비가 수록되지 않은 것 또한 대흥사와 마찬가지로 법주사가 탁본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다.[23] 부휴계의 수록 예가 3기 밖에 안되는 것은 실제 문도들의 수나 활동 상황과는 차이가 난다. 이런 현상은 『금석집첩』에 채집 수록한 대상에서 누락된 결과일 수도 있고, 문도 수에 비해 해당 시기에 승비를 남길 정도의 활동적인 승려들이 많지 않았던 현상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금석집첩』에 수록된 보현사의 승비들은 17~18세기에 보현사가 청허계의 4대 계파가 모두 활동하던 터전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편양파의 주요 터전으로서 편양파 문도들이 지속적으로 宗統을 계승하며 활동하였음을 확인해 준다. 청허의 嫡統을 계승했다는 의식은 이런 보현사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축적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들 자료 중에 벽허 이후의 비들이 아주 소략한 행적만을 담고 있는 것은 이들의 활동이 이전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 그 위상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금석집첩』에 수록된 승비 자료는, 이를 통해 불교계 활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사적인 의의를 갖는다.

4. 雪巖・雲坡・碧虛・天然의 비문으로 본 보현사 승려들의 활동

보현사에 세운 18세기 승비 중에 『금석집첩』에 수록되어 처음으로 그 존재가 알려진 자료는 雪巖秋鵬, 碧虛圓俊, 雲坡義俊, 天然智文의 4인의 비문이다. 이 4기의 비문은 몇 가지 특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설암의 비문은 이미 알려진 다른 비문보다 충실한 내용을 갖는 正本의

23) 미황사의 승비는 설봉대사의 비 1기가 수록되었지만, 같은 시기에 훨씬 활동적이었던 대흥사의 승비는 1기도 수록되지 않았고, 법주사의 승비도 1기도 수록되지 않았다.

위상을 보여주는 비문이다. 이를 통해 기왕에 알려진 것보다 일부 보완된 설암의 생애를 알 수 있다. 벽허의 비문은 수사적인 문장이 많은 반면 행장과 관련된 내용은 소략하다. 운파와 천연의 비문은 더 소략한 형태이다. 설암의 제자가 벽허이고, 설암의 다른 제자인 허정의 제자가 천연이다. 운파는 위 3인과 같이 편양파이기는 하지만, 3인이 풍담-월저의 계열에 속한 데 비해 청엄-운봉의 계열에 속해 다소 다른 계통이다. 보현사에는 편양-풍담-월저-설암의 비가 모두 건립되었다. 또 설암의 제자로는 벽허와 虛靜法宗과 慈應信和의 비가 건립되고 허정의 제자인 천연의 비 또한 건립되었다. 편양파 주류는 보현사에 단절 없이 대를 이어 비를 건립하며 그 전통을 이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현사에는 여기에 편양-청엄파의 운봉영우-운파의준-月峰正佑의 3대 비와 풍담의 제자인 松溪圓輝의 비가 건립되었고, 사명파의 靈巖智圓, 정관파의 松坡覺敏의 비도 건립되었다.

雪巖秋鵬(1651~1706)의 비는 月渚道安이 지었다. 비문에 따르면 서산-편양-풍담-월저로 계승되는 법맥을 잇는 종통을 자부하였다. 설암대사는 자가 圖南으로 平原金氏이며 부친은 應素, 모친은 晋山張氏이다. 어려서 풍채가 훤칠하고 무리에 섞여 놀지 않았는데 스스로 衆中尊이 되겠다고 하였다 한다. 9세에 宗眼을 따라 法興寺 東庵으로 출가하였는데 암주는 虛白의 제자인 涵月泰軒이었다. 글자를 배울 때 한번 들으면 잊지 않고 외울 정도였다. 安國寺 碧溪九二에게 계를 받았는데 시를 잘 지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벽계가 월저에게 맡겨 문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월저가 가르쳤더니 선과 교에 뛰어나 18세(1668)부터 월저를 따라 불교계에 이름을 올린 후 묘향산에서 두문불출하고 개당하여 講學과 禪論으로 수많은 승려들을 수고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이끌었다. 1702년에 호남을 순력하여 龍泉寺 龍興寺를 거쳐 大興寺에서 이름을 드날린 후 澄光寺 仙巖寺 楞伽寺를 거쳐 松廣寺에서 강학으로 또 이름을 떨쳤다. 1706년에 몸이 좋지 않아 징광사에 돌아와 얼마 안 있다 입적하였다. 설암은 신장이 7척에 부처님처럼 수족에 網相이 있고 손이 무릎을 지날 정도로 용모가 특이했으며 박학강기하여 불전과 외전에 밝고 문장이 빼어나며 강의가 청산유수여서 배우는 이가 수없이 많았다. 시에 뛰어나 많은 작품을 남겼고,[24] 종밀의 책을 분석한

『禪源諸詮集都序科評』 2권을 남겨 그 禪論을 보여주고 있다.[25] 청허의 5대손이 되는 그의 사리는 五分하여 보현사 동산사 징광사 능가사 대둔사 다섯 곳에 分藏했다. 그리고 긴 銘으로 비문을 마무리하였다.

설암의 비는 모두 4기이다. 영변 보현사비는 스승인 月渚대사가 지어 입적한 2년 후인 1708년에 세웠는데, 건립 연대가 확실한 첫 번째 비이다. 이에 비해 입적한 곳에 세운 낙안 澄光寺비는 제자 碧虛圓照 등이 徐宗泰에게 비문을 부탁하여 세운 것으로서, 보현사비와 비슷한 시기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숙천 東山寺비는 역시 스승 월저대사가 지은 것인데, 사리를 또 얻어 세운다 한 것으로 보아 앞서 두 비보다 조금 후에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징광사비와 동산사비는 현재 비가 남아 있지 않고 지은이의 문집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해남 대흥사비는 李德壽가 지어 1739년에 세운 것으로 가장 후에 세워진 것이다.[26] 특이하게도 대흥사비는 한 비에 월저대사와 설암대사 2인을 나란히 수록한 것으로,[27] 월저가 입적한 1년 후인 1716년에 보현사에 이미 그의 비가 세워진 것에 더해 대흥사에서 이들을 12대종사의 3대와 5대 종사로 추숭하며 다시 세운 것이다. 이덕수는 설암이 평양 광법사에서 15일 동안 기신론을 강의할 때 이에 참석하여 대사를 안 인연으로 자신과 方外之交를 맺은 지 하루이틀이 아니어서 대흥사비 비문을 짓는다고 하였다.

동산사비는 보현사비와 같이 월저가 지었지만 내용이 소략하다. 법명과 법호, 부모와 출생지, 출가사와 월저 자신과 지낸 10여 년, 敎禪에 두루 뛰어났음을 사실 위주로 서술하고, 징광사에서 입적하여 사리를 4매 얻어 네 곳에 분장하고 또 1매를 얻어 동산사에 탑을 세우고 비를 세움을 서술하였다.[28]

징광사비는 서종태가 지었는데, 짓게 된 인연은 분명하지 않다. 서종태는 설암의 제자 원조와 민기가 찾아와 거듭 청하므로 짓는다고 밝혔을 뿐이다. 내용도

24) 설암의 詩와 여러 유형의 글을 모은 『雪巖雜著』 3권이 간행되었다.(『한국불교전서』 9-236)
25) 秋鵬, 『禪源諸詮集都序科評』, 『한국불교전서』 9-204.
26) 비에서 이덕수는 이조판서로 직함을 밝혔는데, 이덕수가 이조판서에 재직한 것은 1737년이므로 (『英祖實錄』 영조 13년 8월 16일조) 이 해에 지은 것일 것이다.
27) 불교중앙박물관 편, 『2020 금석문탁본조사보고서』,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20, 179-183면.
28) 「肅川東山寺雪巖堂秋鵬大禪師碑文」, 李智冠 編 『韓國高僧碑文總集一朝鮮朝・近現代一』,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 344면.

소략하여 법명과 법호, 부모를 비롯하여, 종안에게 출가하고 벽계구이에게 5년간 수학했으며, 이후 월저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월저를 앞설만큼 선교에 뛰어나 묘향산에서 30년을 주석했고, 이후 남방에 유력하여 수백인에게 설법한 일과 징광사에서 입적하여 영골 1편을 얻어 탑을 세웠음을 기술하였다.[29]

대흥사비는 이덕수가 광법사에서 강의를 들은 일, 안채가 형형하고 戒行이 높고 귀천을 평등하게 대한 일, 종안에게 출가, 벽계구이에게 5년 수학, 월저 문하에서 교학에 뛰어나 의발을 전수받았고, 남방 유력으로 종풍을 드날리다 입적, 사리 5과를 얻어 징광사와 대둔사에 分塔, 법명과 부친 등을 기술하였다.[30]

이렇게 볼 때 설암대사의 비 4기 중에 『금석집첩』에 수록되어 새로 밝혀진 보현사비의 내용이 가장 충실하여 설암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는 의미가 있다. 곧 보현사 설암대사비문은 설암의 유일한 비문은 아니지만, 가장 충실한 비문으로서 주인공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雲坡대사와 碧虛대사와 天然대사는 『금석집첩』에 수록된 비문을 통해 처음으로 이들의 활동을 알게 된 자료이다.

雲坡대사 義俊(1647~1728)의 비는 처사 金時鼎(1684~1760)이 지어 입적한 그해에 바로 건립했다. 운파대사는 속성이 洪氏인데 16세에 志性을 따라 香積寺에서 계를 받았다. 3년 후에 五峯山 月霄대사에게 수학했고, 이어 雲峯대사에게 13년을 수학했다. 이후 명산을 순력하며 여러 선지식을 만나 보고 묘향산에 돌아와 개당 설법하니 멀리서 찾아와 배우는 이들이 많았다. 묘향산에 주석한 지 10여 년만에 입적하니 나이 82세, 승랍 66세였다. 다비하여 사리 2매를 얻어 1매는 모향산에 봉안하고 1매는 주석한 적 있는 가지산에 봉안했다. 운파는 운봉의 제자인데, 운봉은 서산의 직계 제자였다. 비문은 제자인 正佑가 金時鼎에게 간청하여 짓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문의 내용으로는 운파대사의 구체적인 활동을 알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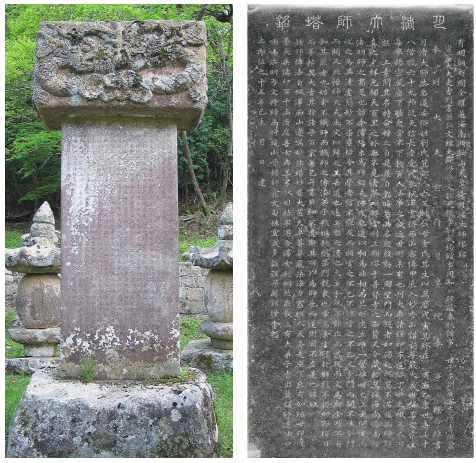
---

29) 「樂安澄光寺雪巖堂秋鵬大禪師碑文」, 李智冠 編 『韓國高僧碑文總集一朝鮮朝・近現代一』,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 340-34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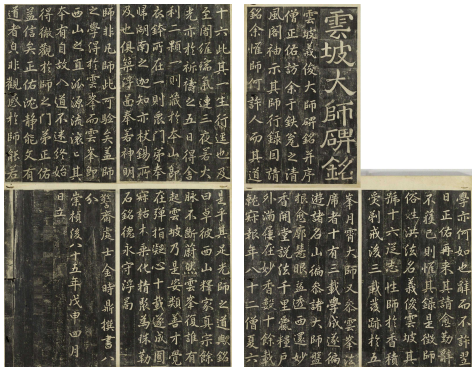
30) 「海南大興寺雪巖堂秋鵬大禪師碑文」, 李智冠 編 『韓國高僧碑文總集一朝鮮朝・近現代一』,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 346-347면.

찬자가 유명 인사가 아닌 것도 그 위상이 달라졌음을 말해 준다. 다만 운파대사는 당시 일반적인 승려들의 행적과 같이, 일정한 스승을 정해 교학을 배우고 선을 수련하여 어느 정도 역량을 다진 후 전국 곳곳을 순력하며 이름난 이들을 찾아 혹은 배우고 혹은 자신의 역량을 점검한 후 다시 본 터전에 돌아와 후학들을 가르치다 생을 마감하는 예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스승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법맥이 淸虛休靜-鞭羊彦機-淸嚴釋敏-雲峯靈佑-雲坡義俊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처럼 보현사에서 주로 활동한 이들은 이곳에 비를 남김으로써 그 자취를 알려주고 있다. 운파대사의 스승 운봉영우와 제자 月峯正佑도 보현사에 비를 남겼고, 이들 모두 『금석집첩』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운파대사의 비는 이 비를 통해 보현사의 승맥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모습을 확인해준다는 자료적 의의를 갖는다. 동시에 비문을 남긴 승려들이 모두 현저한 역량을 보였거나 많은 제자를 양성한 이들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비문을 남긴 승려들은 객관적으로 뛰어난 활동을 보여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경우가 많지만, 대를 이어 활동한 사찰에서 스승의 생애를 간략하게마나 보여주는 비를 세워 추모하는 일도 적지 않았고, 이 운파대사 비는 그런 모습의 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1〉 대흥사 월저비 1739



〈그림 2〉 보현사 운파비 1728



〈그림 3〉 통도사 용파비 1721

운파대사비의 건립 양상은 18세기에 점차 간략화되는 승비의 내용과도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 시기부터 승비의 내용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통도사에서는 심지어 생몰년도 알 수 없고 다만 비의 주인공과 함께 살았던 몇몇 사람들이 주인공의 이름과 세운 이들의 이름과 세운 해 정도를 새긴 간소한 비를 세우는 전통이 지속되기도 했다.[31] 용파대사비의 경우 비 전후면의 내용이 "禪敎兩宗都摠攝龍波堂道周大師碑/ 崇禎紀元再辛丑四月日 宗門・受戒 並立"이라는 구절 뿐이다.[32] 그러나 운파대사비는 이들보다 비의 형태나 내용

31) 통도사에는 일련의 간략한 승비가 다수 세워졌다. 1694년 友雲眞熙, 1694년 洛雲智日, 1700년 寒溪信默, 1704년 東雲慧遠, 1713년 凝庵僖愈, 1721년 龍坡道周, 1724년 陵庵智英, 1765년 九龍天有, 1804년 淵坡德藏 등이 있고, 이 추세는 19세기에도 이어졌다.(『한국의 사찰문화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Ⅱ 자료집, 2010, 306-308면)

면에서 더 갖추어진 면모를 보이고 있어 분명히 구분된다. 동시대에도 대흥사 월저비는 충실한 비문 내용을 보여주지만 운파비는 내용이 소략해지는 추세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碧虛대사 圓照(1658~1735)의 비는 이조참판 吳光運(1689~1745)이 지어 11년 후에 건립했다. 벽허대사는 속성이 韓氏이며, 부친은 應百, 모친은 崔氏로 평양 출신이다. 용모가 청수하고 안광이 형형하여 지혜가 뛰어났다. 10세에 覺炯에게 출가하여 太淸山 圓寂寺에서 계를 받고 후에 묘향산에 가서 설암대사에게 배우고 서산대사의 의발을 전수받았다. 호남 지방에도 유력하여 楞伽寺와 澄光寺에서 강연하여 학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승랍 68년 동안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고 연찬에 열중하였고 명산을 유력하더라도 반드시 묘향산에 돌아와 결제를 지냈으며, 입적 또한 숙녕의 동산사에서였다. 다비하여 사리 3매를 얻어 대흥사 보현사 동산사에 탑을 세웠다. 비는 현재 보현사비만 알려져 있다.

이 비문을 통해 보현사에서 편양-풍담-월저-설암-벽허로 법통이 계승되며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졌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스승 설암과 마찬가지로 당시 강학이 성행하던 호남을 찾아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는 행적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 시기에 불교계의 중심 위상이 점차 대흥사 징광사 등 남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 비문 자료는 보현사 승려의 활동 양상이 남방에 미친 구체적 모습을 확인해 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비문의 내용은 도의 같고 다름을 서술하는 등 수식적 문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벽허대사의 행적 자체에 대한 부분은 매우 소략하다. 비문을 짓게 된 경위도 찬자인 오광운이 불교 글을 짓지 않겠다고 작정했지만 벽허의 제자인 海華가 趙顯命의 글을 가지고 와서 요청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찬술했다고 술회하였다. 이와 같은 비문 구성은 벽허대사의 시기에 스승 설암대사와는 달리 교계에서 뚜렷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징광사에서 이름을 떨쳤다 하나 그 구체적인 실상도 기록하지 않았다. 승려 비문의 찬술이 대체로 제자들이 작성한 行狀에 기초하는 것인

32) 물론 통도사에서도 雪松演初(1676~1750)의 비는 찬자 서자가 저명 인사이고 일정한 내용을 갖춘 비문에 비 형식도 격식을 갖추어 세웠다.

데, 이와 같은 비문 내용의 간략화는 행장 자체가 간략화된 것일 수도 있고, 행장은 풍부하나 찬자가 간단하게 지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벽허대사는 물론 이하에 소개하는 이들도 한결같이 간략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보현사 승려들의 활동이 점차 축소되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天然대사 智文(1681~1749)의 비는 대사간 金陽澤(1712~1777)이 지어 입적한 후 4년만에 건립했다. 천연대사는 김씨로 속명이 春鳳이다. 9세에 보현사에 들어가 13세에 구족계를 받고 처음에 月渚대사에게 배우고 이어 雪巖대사에게 배워 선리를 깨쳤다. 虛靜法宗에게 나아가 그의 법을 부촉받아 청허의 6세손이 되었다. 교학에 밝고 선으로는 종사의 명망을 얻었다. 세수 79세, 승랍 57세였다. 총림에 주석한 이래 산문 아래로 발을 딛지 않으며 불법을 수호하고 종통을 계승하여 선도량이 무궁히 빛나고 묘향산이 더욱 이름나게 하였다. 비문의 서두에서 아난 가섭을 들어 교와 선으로 사람들을 이끌며 청허의 유풍을 빛내 교와 선에 뛰어난 이로 천연대사를 소개하였는데, 이 역시 교선에 걸쳐 두루 수련하며 활동하던 당시 풍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

천연대사는 법통은 허정대사를 이어 청허 6세손이 되었지만, 허정의 스승인 설암에게도 수학했고, 설암의 스승인 월저에게도 수학했다. 천연의 경우에서 여러 스승에게 수학하더라도 한 스승만을 법맥 계승자로 확정하여 법통이 계승되던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이 비는 천연대사는 淸虛休靜-鞭羊彦機-楓潭義諶-月渚道安-雪巖秋鵬-虛靜法宗-天然智文으로 계승된 법통의 적통 전승자임을 확인해 준다.

그러나 이 비문을 통해서 천연대사의 구체적인 활동 상황은 알기 어렵다. 비문에 쓰이는 수사 어귀 이상의 수학 상황이나 교학과 선론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천연대사의 비문을 통해 18세기 전반에 보현사에는 편양파 중에서도 설암추붕 문하에 세 제자가 활동하며 각자 법맥을 계승해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설암의 스승인 월저와 동문인 월담설제에서 환성지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18세기부터 대흥사를 중심으로 주류를 이룰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는 추세에 보현사가 불교

계의 주도적 위상을 넘겨주는 듯한 형세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5. 맺음말

『金石集帖』 226책 중에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은 220책이다. 이 가운데 불교 자료는 釋寺 항목으로 11책 101종의 자료가 수록되었으나 현재 전하는 것은 88종의 자료이다. 『금석집첩』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불교자료는 모두 10종이며, 이밖에 11종은 탁본 자료를 처음으로 전해주고 있기도 하다. 88종의 불교 자료 중에 절반에 가까운 41종이 35인의 승려들에 대한 비문 기록인 僧碑이다.

17세기부터 『금석집첩』 수록 승비의 하한년인 1760년까지 건립된 승비는 90기인데, 이들 중 普賢寺에 건립된 것이 17기이고, 白華庵 楡岾寺 乾鳳寺 등 금강산 사찰에 13기가 건립되었다. 남쪽 사찰로는 大興寺에 7기, 美黃寺에 2기가 건립되었다. 이들 사찰에 건립된 39기의 승비는 이 시기에 보현사와 대흥사가 불교계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음을 말해 준다.

『금석집첩』에는 41기의 승비가 수록되었는데, 모두 해당 승려의 僧系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승려들의 생애를 담고 있다. 41기 중 보현사의 승비가 15기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유점사와 백화암에 각 4기, 건봉사와 深源寺에 각 2기 등 금강산 일대의 사찰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12기가 건립되었다. 경기도는 2기, 경상도는 表忠祠 2기 등 5기이고, 전라도는 3기, 황해도와 함경도는 각 2기이다. 이 분포는 전체 승비의 지역 분포와 동일한 경향이면서도 차이가 있다.

41기의 승비는 浮休系 3기를 제외하고 모두 淸虛系 승려들의 비문이다. 『금석집첩』의 승비는 청허계 중에서 四溟派가 금강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法脈을 계승하며 활동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靜觀派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활동하였고, 逍遙派는 대흥사에서 강학을 주도하는 한 흐름을 이루었음을 보여 준다. 鞭羊派는 18기나 되는 가장 많은 자료가 수록되었는데, 같은 편양파 중에서도 계열에 따라 다른 활동 무대를 가졌음을 승비들은 보여주고 있다. 편양-楓潭義諶-月渚道安-雪巖秋鵬을 계승하는 문도들은 보현사에서 대를

이어 활동하며 중추적인 위상을 확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풍담-월저-설암은 보현사와 대흥사를 모두 근거로 삼아 활동을 펼쳤다. 이들 월저 계열이 풍담-月潭雪霽-喚醒志安-虎巖體淨-蓮潭有一로 계승되는 법맥과 함께 대흥사를 불교계 제일의 講學 도량으로 이끌었다. 여기에 소요파의 醉如三愚-華岳文信-雪峰懷淨 계열이 합세하여 대둔사 12대종사로 일컫는 18세기 후반 불교계의 중심을 이루었는데, 이를 모두 『금석집첩』의 비문이 확인해 주고 있다.

이처럼 『금석집첩』에 수록된 승비는 17~18세기 불교계의 변화 추이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불교사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편양파 승려들이 보현사와 대흥사에서 중첩되는 활동을 보이다가 점차 대흥사 중심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금석집첩』의 비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의의가 크다.

『금석집첩』을 통해 처음으로 소개되는 승비 자료는 승비 제작의 추이를 보여준다는 의미도 갖는다. 신자료 중에서 18세기에 건립된 것은 雪巖秋鵬・雲坡義俊・碧虛圓照・天然智文의 4인의 비문이다. 설암의 비는 4기나 건립되었지만 『금석집첩』에 수록된 보현사비(1708년)가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운파의 비(1728년)는 편양파에 속하지만 풍담과 동문인 淸嚴釋敏 계열인 운파의 비인데, 내용이 훨씬 소략해져 개괄적인 생애를 담고 있을 뿐이다. 벽허의 비(1746년)는 수식적 문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벽허대사의 행적 자체에 대한 부분은 매우 소략하다. 이는 보현사 승려들의 활동이 불교계에서 점차 위축되던 분위기를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천연의 비(1753년) 또한 소략하여 수사 어귀 이상의 수학 상황이나 교학과 선론의 면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의 비문을 통해 보현사에서 설암 계열이 대를 이어 활동하며 종풍을 계승한 면모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처럼 18세기 보현사의 새로 소개된 승비들은 비문의 내용이 점차 소략해지고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승비들은 17~18세기 불교계의 변화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그대로 보여준다는 불교사적 의의를 갖는다.

▮ 참고문헌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불교중앙박물관 편, 『2020 금석문탁본조사보고서』,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20.
李智冠編『韓國高僧碑文總集-朝鮮朝・近現代-』, 伽山佛教文化硏究院, 2000.

秋 鵬, 『禪源諸詮集都序科評』, 『한국불교전서』 9.
_____, 『雪巖雜著』, 『한국불교전서』 9.
『金石集帖』 178책 談/ 219책 傳/ 220책 聲/ 221책 虛/ 222책 堂/ 223책 習/ 224책 聽/ 225책 禍/ 226책 因/227책 惡.
『한국의 사찰문화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Ⅱ 자료집, 2010.

金相永・崔兌先・黃仁奎・李丙旭, 「朝鮮時代 佛教金石文 調査硏究(1)」,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논문집』 10, 2001.
김선기,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와 변동」, 『한국사연구』 200, 한국사연구회, 2023.
손성필, 「17세기 전반 高僧碑 건립과 조선 불교계」,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정병삼, 「高麗 高僧 碑文 譯註의 과제와 방향」, 『고려시대연구』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_____, 「『金石集帖』 수록 불교자료의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최연식, 「高麗時代 高僧의 僧碑와 門徒」, 『한국중세사연구』 30, 한국중세사학회, 2013.
崔源植, 「조선시대 승려 碑銘 및 行狀 一覽」, 『伽山學報』 7,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8a.
_____, 「拓本으로 전해지는 조선 후기 승려 碑銘」, 『史學硏究』 55・56, 한국사학회, 1998b.

▌부록 1: 보현사 설암추붕 비문

雪巖堂碑銘

雪巖鵬禪師妙香山普賢寺碑銘幷序

安樂窩長老月渚撰書篆

堅固林潛輝後 竺乾支那 一華五葉 芬芳香風 遠吹於海此岸 至西山而調刁 鞭羊楓潭 相繼爲東方大苾芻 月渚爲末葉 而又有雪巖 名秋鵬 字圖南 世姓平原金 父應素 母晋山張氏 夢得大瓠從樹之而懷胎 順治辛卯八月二十七日子時 落地三登倉洞也 提孩時 岐嶷之資殊他兒 苦坐移晷 不入于佃獵 隊中問之 曰吾欲爲衆中尊 九歲己亥 從母之長僧宗眼師 去家入法興東庵 庵主泰軒 又眼之長而同居 堂曰涵月 虛白門人也 字學之初 歷耳根則能誦不忘 稟戒于安國之碧溪九二大師之門 艷才名而使集字 應聲云 山花高下色 林鳥短長聲 二乃驚異之 令不撤緣究之業 披文屬思 日日新之 碧溪遂興 越鷄鵠卵之歎 轉付囑於余 以爲入室之資 切磋其業 擧一隅而三自反 喚應數載 教義禪偈 敲唱兼帶 言格拔出 卽康熙戊申歲 雪年二九也 相從余 出沒于法水之漩流 內守之學尤切拳拳 得其受用無竭二十餘年 甘苦喫盡 衆推爲比門宗師 住香山在在 杜門開堂 明來暗來 四八來一一 旋風開示之際 激揚拈弄底 雖萬一於古德門風 以慈愍心 汲引不倦之勞 亦可謂珠在掌而鏡忘罷 故執鏡難者盈門 拘虛輩莫不延頸而翹佇也 壬午春 志欲觀慕 而遊湖南自龍泉龍興 以抵于大興 興祖道於大道場 過澄光攀仙巖登楞伽 以坐松廣 海會雄雄名可名者 坌集若曇鉢花之時現也 丙戌秋初 還金華 以有微疾 彌留而逗 到八月初五日醺沐更衣 囑後有事 留偈而終 卽其夜分前亥時也 于時踈雨朗霽玄黃間 變幻金色也已矣雪子也 身長七尺 頦顙骨岡 稚顔珂齒 齒四十欠四 手足之紋網相 眼珠光射 語音瑯瑯垂手至膝 性閑靖而聰敏强記 故經書外記 雖不嘮嘮而綴文 則措辭波瀾 援引葛藤 經談詩語 河懸泉湧 談柄一麾 衆翕如麻 所至叢席 聽者如市 檀筵粧點 講室塗抹 人皆聳聽無不攢手 尤善於韻語 酬唱擊鉢爭先 至於大疏話說會編筆削 今古雜記 無不該博 故異門之嘍囉 呈辯才者 各撤藩籬 藏鋒結舌 而降伏其心 如假數餘年紀 蹴踢南中地遍則〇旗 而摳衣者 何翅二三子而已哉 但以引蟻者腥膻 眩眼者毛輪 飮三昧詩一塵 至於冷煖之面 有失機栝 始終之口 難保歲寒 故氷山堆積 心月虧盈 戒撿雖切於業業 光陰返忽於悠悠 致使歲光 摧頹神力厄贏 是爲稱大漢人之一大欠也 可不惜乎 然以淸淨之禪

心法之旨 遡其源流 而究其淺深 則芙蓉根於泥蓮 月影流於曹源 繼淸虛第五葉 而火三昧際骨飛於金水器中 持入香山 祝得五分神珠 於本山東山澄光楞伽大苫 五地分藏 特雪之餘事也 其績城地五百年 人傑之說非邪 吁可尙矣 遂爲祗夜 銘曰

佛祖浪起 西乾東震 波濺海岸 龍象振振 猗我西山 嶽降眞人 間氣斯來 北斗南辰
鞭羊楓潭 相繼鼓吹 江月分輝 雪巖中峙 半千人傑 綾城地靈 學能中難 茜絳藍靑
念智不忘 門開大施 寶山實歸 衢樽盡醉 卄載香山 千里南湖 叢林草靡 猿鶴風趍
天何不遺 金華鵠樹 忽罷潮音 餘子何怙 一片金骨 五枚神珠 分藏南北 滑耀八區
紀玆貞珉 永示不滅 以幻傳幻 幻幻何竭

有淸康熙四十七年戊子四月 日

▮부록 2: 보현사 벽허원조 비문

碧虛大師碑銘

有明朝鮮國平安道寧邊妙香山普賢寺碧虛大師碑銘幷序

嘉善大夫吏曹參判漢城府左尹兼同知義禁府事弘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吳光運撰

通訓大夫前行公州判官諫李德顯書幷篆

余近守紫陽 戒不爲禪家作文字 日有妙香山僧海華 奉歸鹿相公書 踵余門 爲其師碧虛大師 請浮圖珉刻之銘 余信相公甚篤 必不以已不爲者命 人其必有所感者存 遂取其狀而閱之曰 師於十歲 從覺洞師 受戒於太淸山圓寂寺 後入妙香 事雪巖大師 學貫諸乘 遂傳西山大師六嚲之衣鉢 嘗遊湖南 登稜伽而坐澄光 海會雄雄 名可名者坌集 異門之嘍囉 皆撤藩籬而歸焉 余歎曰 天下之道一而已 彼異於吾道者 實與空也 旣岐而道其道則空之道 亦一而已 道之所在於東海而同焉 生於北海而同焉 彼稜伽之歸一宜也 然能一於彼而不能一於此何也 彼能吾之所不能者 無名利之爭而然歟 余旣有感矣 不可以無言 師韓姓 父應百 母崔氏 箕城人也 法名圓照 碧虛其號也 性恬雅 狀貌淸癯 眼光炯淨 聰慧過人 服西戎六十八季 鑽硏不懈如一日 周遊域內名山 輒以關西爲歸 每結夏於妙香 終於肅寧東山寺 不忘本也 乙卯三月初六日入寂 茶毗之夕 祥光燭天

白舍利三枚出云 噫空空而觀 有抑誠之所形也 誠以觀空 以至於有 況至誠而觀有者耶 余於是重有感焉 海南之大苪 寧邊之妙香 肅寧之東山 望日皆樹塔焉 銘曰

黃花法身 翠竹眞如 其法異於余 彼觀則氣 我觀則利 吾能同其異

名同實異 門墻百歧 不銘此何爲 鑽研者誠 首丘者仁 此法同吾人

空以彼法 實以吾銘 所同者性靈

崇禎紀元後再回丙寅端陽後五日立

▮부록 3: 보현사 운파의준 비문

雲坡大師碑銘

雲坡義俊大師碑銘幷序

僧正佑 訪余于鐵瓮之淸風閣 袖示其師行錄 因請銘 余惟師何許人 而其道學亦何如也 辭而不許 翌日正佑再來 其請愈勤 辭不獲已 則惟其錄是徵 師俗姓洪 法名義俊 雲坡其號 十六從志性師 於香積受剃戒 後三載 發跡於五峯月霄大師 又參雲峯法席者十有三載 學成遂徧遊諸名山 徧參諸大師 盤根愈廓 慧眼益透 西還妙香 開堂說法 千里贏糧 戶外滿屨 在妙香數十餘載就寂 報年八十二 僧夏六十六 此其一生行逕也 及至闍維 瑞氣連三夜若大光 亦於祈禱之五日 得舍利二顆 一卽藏於本山 卽衣鉢所在 一卽衆門弟 奉歸湖南之迦知 亦杖錫所及也 俱築浮圖 奉若神明 師非凡師 此可驗矣 蓋師之學 得於雲峯 而雲峯卽西山之直派 源流滾滾 其本有自故 入道不迷 終始得徹 觀於師之門弟正佑 益信矣 正佑沈靜能文有道者 皃非觀感於師 能若是乎 其足光師之道歟 銘曰

卓彼西山 釋家眞宗 餘脈不斷 蔚然雲峯 復雖有起 雲坡乃是 安類善才 覺在禪旨

凝心十載 遂成圓寂 枯木乘化 精聚爲珠 勒石銘德 永守浮圖

警齋處士金時鼎撰書八分

崇禎後八十五年戊申四月日 立

▌부록 4: 보현사 천연지문 비문[33]

天然大師碑銘

天然大師碑銘

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金陽澤幷撰書篆

佛有禪教二法 阿難迦葉 各臻其極 而若其拓開迷塗 導化衆生 教之功殆 又過之近世西山遺法 紹光接武 羽翼教宗 維持浩劫杏 所謂分身華嚴界中 乘願輪而至者 非師而誰師諱智文 密雲金氏子 俗名春鳳 母夢見 采鳳來儀 因有娠 以鳳名焉 生九歲 投妙香普賢寺 十三祝髮灸具 初從月渚 參雪巖契 三玄三要 深得古人妙用 晩益熏習靈詣 日進虛靜 傳衣付囑 法門遂大闢 實鳥西山六世嗣孫 師嚧鞠弘廣 悲智堅密 大多含章 而外不規 規邊幅 天然之號 亦一照容也 專門之學 淹貫大乘 推之演教諸山 接應方來 蔚有宗師之望 己巳冬示微疾 召群弟 說戒鄭重 翌日薰沐趺坐 正定而逝 世壽六十九 僧臘五十七 自住叢林以來 掩貫金輪 足不下山門一尺墜 而水乳普濟之功 包羅大沙彌矣 嗚呼西山之道 大鳴我東 流風餘馥 殆遍國中 而茂烈殊蹟 多挾此山 甁鉢之托 前後輩出 師兮護法承宗 鎭此大麓 永爲曺溪道場 毓靈蘊秀 滾滾無窮 已香岳之名 由此益邵 而亦將與法運 相終始不忒也歟 銘曰

維香之峙 有大比丘 祖燈繼照 法雲長浮 功基一龍 化遍十方 柏樹寒溪 彈指孤光

匪師之作 山河以顯 匪山之靈 師何所隱 不騫不崩 山之與壽 載淸載淨 ○其窮宙

我勒斯銘 永示不朽

崇禎紀元後三癸酉卯月日

33) 天然大師 비문 판독은 유지복 교수님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Abstract】

Buddhist memorial stones of Bohyeonsa in *GeumseokJipcheop* and the change of making Buddhist memorials in 17th~18th century

Jung Byungsam*

Among the 226 books of *GeumseokJipcheop*, 220 are currently delivered. There are 88 kinds of Buddhist data currently. There are 10 data of Buddhist materials newly known through the *GeumseokJipcheop*, and 11 other types are the first known rubbing materials.

Of the 88 Buddhist data, 41 are memorial stones for 35 monks. The Buddhist memorial stones built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count up to 140, until 1760, the period of collecting *GeumseokJipcheop*, are 90. Among them, 17 were built at Bohyeonsa, and 13 were built at Geumgangsan Temple, including Yujeomsa, Baekhwaam, and Geonbongsa. As for the southern temples, 9 were built in Daeheungsa and Mihwangsa. The 39 Buddhist memorial stones erected in these temples indicate that Bohyeonsa and Daeheungsa were at the center of Buddhist activities during this period. Among the 90 Buddhist memorial stones, 41 were collected and included in the *GeumseokJipcheop*. All of the 41 contain the lives of monks who showed outstanding activities. Of the 41, Bohyeonsa's ascendancy is 15, and 12 were built in Gangwon-do. Gyeonggi-do has 2, Gyeongsang-do 2, Jeolla-do 3, and Hwanghae-do and Hamgyeong-do have 2.

The Buddhist memorial stones of *GeumseokJipcheop* tells us that among the Cheongheo lineage, the four branches are continuously inherited and active at Geumgangsan. It shows that Jeonggwan branch was dispersed into various regions, and Soyo branch was a trend that led the lecture at Daeheungsa. The largest number of data were included, with 18 pieces of Pyeonyang branch, and the monks show that among the same two-sided schools, they had different stages of activities depending on the series. Pungdam-Weoljeo-Seolam who inherited Pyeonyang, worked for generations at Bohyeonsa, establishing a pivotal status than any other branch. Pungdam-Woljeo-Seolam carried out activities based on both Bohyeonsa Temple and Daeheungsa Temple. These Weoljeo series led Buddhist streams along with Pungdam-Weoldam-Whanseong-Hoam-Yeondam. They joined with Soyo branch, and led Daeheungsa as the most active temple.

* Emeritus professor, Dept. of History & Culture, Sookmyung Women's Univ.

As such, the monument contained in the *GeumseokJipcheop* has a Buddhist historical significance that shows the trend of change in the Buddhist community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In particular, the inscription of *GeumseokJipcheop*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learly shows that Pyeonyang branch show overlapping activities at Bohyeonsa and Daeheungsa, and gradually show the central aspect of Daeheungsa.

Seolam Chubung, Unpa Euijun, Byeokheo Wonjo, Cheonyeon Jiwon, the newly introduced memorial stones of Bohyeonsa in the 18th century show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ntents of the inscription are gradually abbreviated and it is difficult to know the details of the activity. In addition, the Buddhist memorial stones contained in the *GeumseokJipcheop* have the significance of clearly showing the trend of change in the Buddhist community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Keywords: *GeumseokJipcheop*, Buddhist memorial stones, Bohyeonsa, Daeheungsa, Pyeonyang branch, Weoljeo Doan.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0.